

“후배들에게 희망 주려 최선 다할 터”

임효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격탐사그룹장

지난 3월 11일은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를 연구하는 여성과학자 사회의 한 획을 긋는 날로 기록될 듯싶다. 한국항공우주연구원(항우연) 원격탐사그룹의 그룹장으로 임효숙 박사(42)가 임명됐기 때문이다. 국내 항공우주과학 분야에서 여성이 보직자로 임명된 것은 처음으로서 여성과학자들의 우수한 연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
“항공우주분야에서 여성으로는 첫 보직자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후배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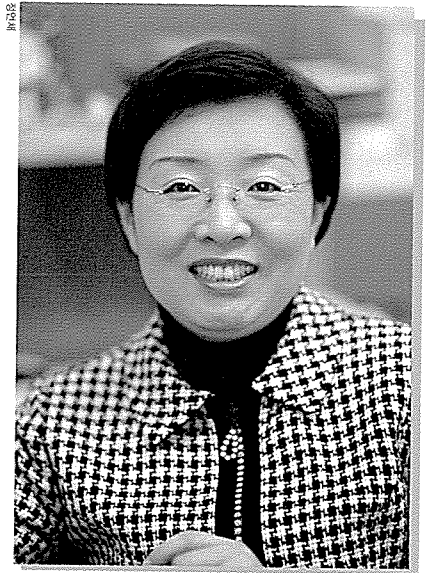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 18만여명 중 여성은 1만9천여명으로 전체의 11.1%에 불과하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고 소개한 임 박사는 “특히 항공우주분야 여성 과학기술 인은 항우연 17명, 산업체(KAD) 12명(항공분야 10명, 우주분야 2명) 등 총 19명이 전부”라며 항공우주분야의 여성 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.

임 박사의 당면과제는 원격탐사그룹이 국내 위성자료 활용연구 분야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다. 임 박사는 “항우연 및 국내 원격탐사 연구자들과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”며 “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위성자료의 홍수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연구를 집중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임 박사는 1996년 항우연에 첫 발을 디딘 후 다목적 실용위성 1호 수신시설 설치·운용 사업, 해양관측카메라를 이용한 자연재해 모니터링 관련 연구업무 등을 수행했다. 2001년부터 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우수여성 도약 지원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한편,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허창희 교수와 초등학교 3~4학년용 ‘지구의 마법사 공기’를 공동저술해 사이언스북 스타트 운동의 추천도서로 채택되기도 했다.

국내 여성과학계의 위상 제고 방안과 관련, 임 박사는 “우리

나라도 학연, 지연 등 인맥의 영향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기회 균등이 이루어질 때에 여성의 능력이 크게 신장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

임 박사가 항공우주연구 분야에 뛰어든 동기는 석사학위 지도교수와 유학중이었던 선배의 강력한 권유였다. 1988년 8월 박사과정의 미국유학을 앞두고 세부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도교수와 선배가 “비록 변변한 연구소가 설립돼 있지 못하지만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앞으로 항공우주연구는 꼭 필요한 분야가 될 것”이라며 강력히 추천했던 것.

“여성의 섬세함을 장점으로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몫을 다하되 주위 사람과 협동할 수 있는 개방된 마음을 갖는 게 소중합니다. 아울러 넓은 시야와 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적 유연성과 쉽게 자신의 꿈을 접지 않는, 인내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”

임 박사는 후배 여성과학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이처럼 강조하면서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.

장형순 자유기교가

임효숙 박사는 1985년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A&M 기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2년간 NASA와 GSFC에서 Post Doctor과정을 마쳤다. 1996년 3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센터 원격탐사그룹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해 왔으며, 현재 산업표준심의회 항공부회 심의위원, 과학기술 엠베서더 명예고공평등 감독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.